서삼릉 집장은 왕릉의 품격 비하·훼손한 일제 침략의도

54 왕자 공주 공동묘지 태실집장지

어이! 왕자, 공주, 차려! 가로 세로 줄 맞춰! 거기, 후궁도 마찬가지!

서삼릉의 이름은 간단하지만 내용은 복잡하다. 희릉, 효릉, 예릉이 대표여서 서삼릉이라고 한다. 거기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망자의 숫자로는 최대다. 서삼릉 경역내(境域內)에는 3원(園)과 46묘(墓)에 태실(胎室) 54기(基)가 있다.

그 중 꼿꼿이 줄맞춰 서서 숙면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왕자, 공주, 후궁들이다. 24시간 사열을 받고 있다. 가로 세로 줄 맞춰 서 있다. 조금이라도 줄이 비뚤어지면 불호령이 내리는지 부동자세로 정렬해 있다. 한때는 그들도 잘 나가던 위인들이었다. 정치적 야심만 버리면 재벌2세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호사를 누렸다.

공주는 중국 진 · 한나라 때 비롯된 말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 이전부터 공주라는 말을 사용했다. 낙랑공주와 고구려의 온달에게 시집간 평강공주가 있으며, <삼국유사> '서동요'의 주인공 선화공주도 있다.

제도적으로 공주라는 호칭은 고려 문종 때의 관제에 따르면 대장공주(大長公主)와 함께 정1품이었다. 그 뒤 공양왕 때 도평의사사의 건의에 따라 왕의 딸은 공주라고 불렀으나, 조선 초기까지도 제도가 미비해 왕녀 · 궁주(宮主) · 옹주(翁主) 등 여러 가지로 불려, 왕의 적실녀 외에 왕의 후궁도 공주라 칭했다. 그 후 조선에서는 왕의 정실이 낳은 딸을 '공주'라고 하고, 후궁이 낳은 딸을 '옹주'라고 해 구별했다. 공주는 지극히 존귀한 신분으로서 품계를 초월한 외명부이다.

공주가 혼인하게 되면 모든 절차와 준비는 종부시(宗簿侍)에서 주관해 국법에 따라 예로써 치렀다. 공주의 남편은 처음 종1품의 위(尉)인 광덕대부(廣德大夫) · 숭덕대부(崇德大夫)로 의빈(儀賓 : 駙馬都尉)에 봉작됐으며, 그에 준한 녹봉을 받았다. 의빈이 죽은 뒤에도 공주는 계속 쌀 · 콩 · 보리를 봄과 가을에 받았다.

공주의 아들은 처음 종7품, 사위는 2등급 낮은 종8품의 품계를 받고, 그에 준한 대우를 받았다. 공주는 내명부 · 외명부와 함께 궁중의 잔치, 왕비의 시위, 혼인 및 초상 등 여러 행사에 참석했다.

공주가 죽으면 국가에서는 왕녀의 상장제도(喪葬制度)에 따라 염빈(斂殯) · 예장(禮葬) · 조묘(造墓)의 3도감(都監)을 설치하고 3일간 조회를 열지 않으며, 왕 이하 궁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등 정중한 예우를 표했다.

후궁은 간택후궁과 승은후궁으로 구분된다. 간택후궁의 경우 애당초 간택대상이 양반 사대부 가문이므로, 그 친정의 신분이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승은후궁의 경우다. 조선시대 궁녀들의 출신성분은 대다수가 천민 공노비였다. 승은궁녀가 종4품 숙원 이상의 내명부 내관(=후궁)에 오를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임신과 출산이다.

비록, 후궁의 몸을 빌어 태어났지만, 왕비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후궁소생의 자녀를 다루었고, 후궁은 자신의 소생에게 존댓말과 함께 '어머니'의 호칭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되는 신분이었다.

왕이 죽으면 왕비는 궁궐에서 살 수 있지만 후궁은 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한다. 그리고 승은을 입었지만 자식이 없으면 후궁의 첩지는 못 받고 상궁이 된다. 이런 상궁들은 왕이 죽으면 궐 밖으로 나가 비구니가 됐다.

서삼릉 경역내에는 후궁, 왕자, 공주 등의 묘 46기(基)가 있다. 이중 회묘(懷墓)와 경선군묘(慶善君墓) 이외의 묘는 후궁과 왕자 · 공주묘로 구분돼 집장(集葬)돼 있다. 가로 세로 반듯하게 정렬한 무덤군이 보기에 참 민망하다. 국립묘지 병사들의 묘역 같다. 왕릉 경역내에는 후궁이나 왕자, 공주의 묘를 쓸 수 없다. 그런데 서삼릉에는 이렇게 많은 묘가 있다니? 사연은 이렇다.

경술국치로 조선왕조가 멸망한 1910년 11월에 일본 궁내성 소속으로 망조왕실(亡朝王室)을 관리하기 위해 이왕직(李王職)이 설치됐다. 이왕직에서는 서울, 경기 일원에 산재한 후궁, 왕자, 공주 등의 분묘를 집장관리(集葬管理)한다는 명목아래 서삼릉 경역내 현 집장지가 선정됐다. 일제 때 숙종의 후궁인 소의 유씨묘 외 15기와 세종대왕의 1녀 정소공주묘 외 18기를 천묘 집장했다.

8 · 15 광복 후에는 일제 때 옮기지 못한 후궁묘 중 묘역 주변 개발로 인해 존치가 어렵게 된 명종 후궁 경빈이씨묘 외 6기를 천묘했다. 왕자묘로서는 고종의 1남 완화군묘를 천묘했다. 그 많던 후궁, 왕자, 공주들은 어디로 갔나? 아직 서울, 경기 일원에 묻혀 있는 일부와 여기 46기가 전부다. 역사에 이름이 올려진 이들은 번듯한 유택을 가졌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갑남을녀처럼 사라졌다.

비구니가 된 후궁은 화장됐을 것이고, 출가한 공주는 시댁의 선산에 묻혔다. 이름만 왕자이지 제 목소리 숨기며 살다간 왕자들이 어디 한둘인가. 그들 역시 무명용사가 되어 소멸했다. 보위가 예약된 양녕대군마저 갑갑하고 살벌한 권력의 심장부가 싫어 일탈을 감행하지 않았던가.

왕실에서는 왕세자를 비롯하여 왕자, 세손, 공주, 옹주가 태어나면 태(胎)를 석실(石室)에 담아 전국의 길지(吉地)를 가려 봉안(奉安)하고 태봉(胎峰)이라 해 그 주변에서는 방목, 벌채, 개간을 금했다. 태실 역시 집중관리라는 미명하에 태조의 태실 등 22기와 왕자 등 32기의 태실을 1930년대를 전후해 서삼릉 경역내로 이설했다.

서삼릉 경역내 묘 및 태실의 집장은 능역 일원을 공동묘역으로 변형케 해 왕릉으로서의 존엄과 품격을 비하 훼손하고자 한 일제의 의도적 책략이었다. 그래도 하나의 경역을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시범낙농단지를 조성했다. 경역의 대부분이 낙농방목초지로 바뀌었다. 경역은 예릉 · 희릉 구역, 효릉 구역, 후궁 · 왕자 · 공주묘, 태실집단 구역, 소경원 구역 등으로 분할되고 각 권역은 서로 통행할 수조차 없는 고립상태에 있다.

136만평에 이르던 서삼릉 능역은 1960년대 무원칙하게 골프장, 종마목장, 초지, 군부대, 대학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겨우 7만평이 남았다. 이마저 이들 시설로 인해 5만평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어수선하던 시절이라 썩둑썩둑 잘라먹는 게임자였던 모양이다.

2006년, 지역 유림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학계, 향토사학자, 문화예술인 등 주민 30여 명이 '서삼릉 복원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세미나, 전문가 의견수렴, 복원 서명운동 등을 추진 중이다. 이들의 1차 목표는, 마사회와 농협이 초지로 사용하고 있는 43만평을 돌려받는 일이다. 이곳에 능행로를 연결하고 재실, 돌다리, 개울을 복원하고 소나무 군락지를 원형대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이다.

자연과 유적은 모두의 것이다. 개인이 거기에 문패를 단들 심사가 편치 않다. 영광과 치욕을 통해 역사를 발전시키고 축적해 나간다. 누군들 별이 되고, 꽃이 되고 싶지 않으랴. 그러나 소멸은 평등하다. 우린 그저 적멸로 향해 갈 뿐이다. 그 노정에 업보를 적게 쌓는 것이 이승의 도리일 뿐.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왕자와 공주 묘.

영월에 있는 정조대왕 태실(위), 서삼릉 왕족가족 태실.

삼국시대 전부터 '공주' 사용 … 조선시대 품계 초월한 외명부
'서삼릉 복원 추진위' 2006년 결성, 서삼릉 복원후 개방 목표

불경학습의 새로운 시작!

보고 · 듣고 · 배우는~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T-108 출시!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기!

염불(念佛),염송(念誦)모음

■ 염 송 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게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게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 제 품 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 아이센스 · 염송경집 1부 · 염송의범 1부
– 기기크기 : 9.5㎝×6㎝, 화면크기 : 5㎝×4㎝, 기기두께 : 0.8㎝
•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분들의 종전 학습방법은 책을 본다든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범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로)과 의식까지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 제품사양
컨텐츠 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 촬영, 내장형 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태스킹 · 백그라운드 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 내장, 터치패드 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 · 일 · 한자 전자사전
※영어 · 일어 ·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제품구성
– 아이센스 T-108
염송경집 1부, 염송의범 1부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2666-0676~8
157-280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01호
전국 대리점 모집 : 010-3785-9398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